

예술심리치료 연구동향 분석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2014~2018)을 중심으로-

김 수 영* · 홍 은 주**

본 연구는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예술심리치료학의 최근 연구동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게재된 총 228편의 논문들을 수집하여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방법, 매체별 예술심리치료 분야에 따라 분류한 뒤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심리치료분야의 주요 연구대상은 청소년과 치료사로 각각 13.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내용에서 치료성과를 다룬 연구가 46.1%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론개발과 개관연구가 각각 14%, 10.1%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주제 분석 결과에서 내담자의 자아성장과 관련한 연구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심리건강(22.4%), 부적응/문제행동(13.6%)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방법에서는 68.9%가 양적연구로 이루어졌으며 24.6%를 차지한 질적연구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매체별 예술심리치료분야 분석에서는 미술치료(59.6%)와 음악치료(19.7%)가 전체의 8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가 지니는 의미와 시사점, 향후 예술심리치료의 발전방향을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예술심리치료연구, 연구동향, 내용분석

* 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 미술치료사

** 을지대학교 아동학부 부교수, eunjoohong@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 관련 서적들이 대중적 인기를 끌면서 심리치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역시 달라지고 있다. 특히 예술심리치료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매체를 통해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술심리치료인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동작치료, 연극 치료 등은 국내에 소개된 이후 독자적인 활동을 추구해왔지만 실제 치료장면에서는 내담자의 상황에 맞게 보다 통합된 형태로 활용되어왔다. 또한 통합치료의 경우 내담자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성과 함께 치료적 효과 또한 높다는 결과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조용태, 2008a).

예술심리치료는 미술, 음악, 연극, 놀이, 무용, 동작 등의 다양한 예술매체를 통해 내담자에게 접근하는 심리치료의 한 영역이다(강영주, 김미진, 2016).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연극치료 등으로 분류되며 이를 2가지 이상 통합하여 치료에 적용하는 경우 이를 ‘통합예술치료’라고 일컫는다. Atkins과 Williams(2007)는 이러한 ‘예술심리치료’에 대하여 심상, 연극, 무용, 시, 음악, 스토리텔링, 꿈작업, 시각예술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인간의 성장, 발달, 치유를 돕는 시술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근매(2011)는 예술심리치료의 특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예술심리치료의 의의를 크게 3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치유적 작용과 둘째, 표현된 것을 통해서 환자와 치료자의 교류가 생성되는 것, 셋째 표현활동과 매체를 통해서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역동적 작용이 그것이다.

1980년대 한국임상예술학회를 시작으로 한국에 예술심리치료가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하더라도 ‘예술심리치료’는 임상심리와 정신의학 분야에 관심이 있던 몇몇 인사들이 임상현장에 국소적으로 활용하던 수준에 머물렀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음악치료협회와 한국미술치료학회 등 단일형태의 예술치료관련 기관 및 학회들이 발족되며 각기 다른 독립적 행보를 이어갔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치료현장과 연구분야에서 통합적 개념의 ‘예술심리치료’가 시도되었고 예술치료분야가 점차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원상화 등, 2009). 이후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예술심리치료 관련 협회나 학회 역시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이루며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하였다.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는 2004년 창립된 이후 예술심리치료 분야의 대표적 기

관으로 활동해 오며 「예술심리치료연구」 학회지를 통해 예술심리치료의 이론적 토대는 물론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적용 및 효과 등을 입증해왔다. 「예술심리치료연구」는 발행 첫해인 2005년 1호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 2호, 이듬해부터 2010년까지는 연 3호, 2011년부터는 연 4호를 발간하는 등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왔고 이러한 팽창 추세는 예술심리치료 분야에 대한 현 시대의 관심을 감안할 때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학회지는 공식적인 학술교류의 장이며 학회지 수록 논문들은 해당 학문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의 기능을 담당한다(조성호, 2003). 그 학문의 전문 종사자들이 모여 발간한 학회지인 만큼 해당 학문의 현주소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한국에서의 예술심리치료 발달 궤적을 함께 해온 만큼 해당 학회지를 살피는 것은 한국 예술심리치료의 현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Brown(1969)은 각 학문연구에 있어 “어디에서 왔고, 현재 어디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이켜 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Brown, 1969; 조성호, 2003, 재인용). 특히 예술, 심리, 의학 등의 다학제적 접근과 더불어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입증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예술심리치료 연구동향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예술심리치료연구」 학회지에서 발간된 연구동향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예술심리치료의 특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이근매, 2011), 미국의 재소자 미술치료연구(임성윤, 2014),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예술치료연구(이정희 등, 2014), 성인미술치료연구(박미숙, 이근매, 2015), 우울에 대한 예술심리치료 연구(강영주, 김미진, 2016), 학교폭력에 관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연구동향과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최태산, 조정숙, 2016), 잡지그림 콜라주 미술치료연구(이근매, 2016), PTSD 관련 국내 미술치료 연구(김도희, 2016), 풍경구성기법(LMT)에 대한 국내 연구(소현경, 이근매, 2017), 언어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한 예술심리치료연구 연구동향 분석(오승진, 권충훈, 2018) 등이 있다.

예술심리치료 분야의 연구 동향을 다룬 연구들의 목적은 예술심리치료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 하고 나아가 학문적 차별성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상기 언급한 동향연구의 경우 특정한 연구대상 및 연구내용, 연구주제에 국한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데 주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언어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한 연구동향 논문(2018)의 경우에는 논문 제목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상위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회지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확인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연구주제나 연구내용, 연구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어 다소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대상이나 연구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예술심리치

료 전반의 흐름을 살피고자 하였다. 2000년대 통합된 형태의 예술심리치료가 시작된 이래로 어떤 방향으로 실제적 적용 및 연구가 전개되어 왔는지 한눈에 살펴봄으로써 예술심리치료 분야의 중간점검은 물론 현 시대가 바라는 요구사항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의 예술심리치료 학회지를 살펴봄으로써 예술심리치료의 다양성과 적용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심리치료의 학문적 연구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예술심리치료 연구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연구문제

- 첫째, 예술심리치료학회지 최근연구에서 연구대상의 동향은 어떠한가?
- 둘째, 예술심리치료학회지 최근연구에서 연구내용의 동향은 어떠한가?
- 셋째, 예술심리치료학회지 최근연구에서 연구주제의 동향은 어떠한가?
- 넷째, 예술심리치료학회지 최근연구에서 연구방법의 동향은 어떠한가?
- 다섯째, 예술심리치료학회지 최근연구에서 예술심리치료 분야의 각 매체별 동향은 어떠한가?

II.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의 학회지인 「예술심리치료연구」에 2014년 10권 1호부터 2018년까지 14권 4호까지 최근 5년에 걸쳐 게재된 논문 총 228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예술심리치료연구의 경우 2005년(1권 1호)에 처음 발간되었고 점차 발간횟수가 증가되다가 2012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이후 현재까지 연 4호로 발간되고 있다.

2. 분석기준

연구동향의 분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김계원 등,

2011; 김수빈, 홍은주, 2008; 기정희 등 2011; 박경애, 백지은, 2017; 조성호, 2003; Buboltz, Miller, & Williams, 1999)들을 분석하여 이들 연구동향 논문들에 있어 공통적인 분석기준이었던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방법, 매체별 동향 등의 5가지 범주를 본 연구에도 적용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분석항목이나 기준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지만 동향연구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에서 다룬 항목을 연구의 분석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변창진, 1995a).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분류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연구대상 13개, 연구내용 10개, 연구주제 2개(하위항목 17개), 연구방법 3개, 매체별 예술심리치료 분류는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연구대상 분류기준

연구대상 분류기준은 Buboltz, Miller, 및 Williams(1999), 김계원 등(2011)이 제시한 연구대상 분류 유목을 참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발달단계별, 내담자 특성, 소속집단에 따라 총 15개 범주로 구성하였으나 예술심리치료 연구에 상담 및 심리학에서 사용된 분석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어 예술심리치료 분야의 실정에 맞게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거나 하위항목에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총 13가지 범주를 완성하였다. 연구대상의 유목은 크게 유아, 아동, 청소년, 대학(원)생, 성인, 노인, 부부/가족, 외국인, 다문화, 소수집단, 장애인, 상담자, 기타 13가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소수집단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소년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를 비롯하여 군인, 새터민, 한 부모 가정만을 포함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발달단계에 속하더라도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소수집단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자세한 분류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분류기준

구분	연구대상	세부내용
1	유아	취학 전 아동
2	아동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3	청소년	14~19세 이하의 청소년
4	대학(원)생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있는 경우
5	성인	성년기에 속하는 일반적인 경우
6	노인	60세 이상의 노년기에 속하는 일반적인 경우

구분	연구대상	세부내용
7	부부/가족	혈연이나 결혼으로 구성된 2인 이상인 경우
8	외국인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경우
9	다문화	외국에서 결혼하여 국내에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는 경우
10	소수집단	○재소자, 특정직업, 시설거주/위탁가정, 군인, 장애아동 가족, 새터민/중도입국, 재난피해민, 감정노동자, 기타 등 특수성이 있는 집단 ○발달단계에 따라 연구대상이 ①~⑥에 해당하더라도 연구주체가 소수 집단의 특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경우 이 항목에 분류함 ○소수집단의 기타 항목으로 최근 5년간 게재된 논문 가운데 연구 수가 1회에 지나지 않는 노숙자, 워킹맘, 자활사업참여자를 포함함
11	장애인	인지적·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니는 경우
12	치료사	치료사 교육을 받는 대학원생, 치료 수련생, 치료전문가, 예술심리치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3	기타	위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대상자나 특정 연구대상을 언급하지 않은 게재논문의 경우 이 항목으로 분류함

2) 연구내용 분류기준

연구내용의 분류기준은 상담학 및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Buboltz, Miller와 Williams(1999)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Buboltz 등(1999)은 미국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에 1973년부터 1998년까지 수록된 2,027개 논문들의 연구내용을 분류하기 위해 15가지 내용 유목(Content Categories)을 개발하였다. 조성호(2003), 김계원 등(2011), 박경애와 백지은(2017) 등이 이 분류 유목을 한국 상담심리학 연구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였으며 미술치료연구에서는 김수빈과 홍은주(2008)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미술치료 연구동향을 고찰하기 위해 이 유목을 활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상기 언급한 논문의 분류기준을 참고하되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치료개입 및 성과에 대한 연구비중이 높은 예술심리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틀을 수정하였다. 또한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소수민족 연구 유목이나 예술심리치료에서 연구빈도가 높지 않은 학업성취연구와 직업적응행동 연구 유목을 분류기준에서 제외하였다. 학업성취나 직업적응 및 행동에 관련된 연구의 경우 학업 및 진로관련 유목으로 통합한 후 치료목표와 관련된 연구주체로 따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류 유목은 10가지이며 각각에 대한 정의 및 분류기준은 아래 <표 2>와 같다.

예술심리치료 연구동향 분석 -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2014~2018)을 중심으로-
(김수영·홍은주)

<표 2> 연구내용의 분류기준

구분	연구내용	세부내용
1	치료성과연구	특정한 개입이나 개입절차에 의한 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내담자의 치료를 통한 최종 변화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효과검증이 이에 해당함
2	치료과정연구	결과나 효과 중심이 아닌 치료과정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 분석된 연구를 의미함
3	치료과정 및 성과 연구	치료의 과정과 효과를 함께 연계시킨 연구로써 치료적 관계를 포함하여 치료요인이 연구대상의 증상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연구를 포함함
4	치료사특성/훈련 및 슈퍼비전 연구	치료사 교육내용(수업) 및 과정, 훈련, 개인 및 집단 슈퍼비전, 치료사 발달 및 치료사 특성에 관한 연구가 이에 해당함
5	성격특성 및 적응연구	개인 및 가족, 조직의 성격특성, 태도, 의견, 가치, 적응 등에 대한 연구를 말하며 성격 특성 및 적응에 대한 기술적 연구도 포함함
6	치료사 및 예술심리치료에 대한 지각연구	내담자 또는 일반인이 바라보는 치료사나 예술심리치료에 대한 지각이나 기대 또는 태도를 다룬 연구를 말함
7	검사도구 개발 및 관련연구	심리 측정과 관련한 도구개발 및 타당화 연구, 투사검사 개발 및 타당성 연구, 반응특성 연구 등을 포함함
8	개관연구	특정주제에 관한 기존의 예술심리치료 연구들을 집약하고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들을 포함함
9	이론(개발)연구	기존의 연구들을 개관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관점의 이론이나 개념 등을 정립하는 연구를 의미함
10	기타	상기 언급한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며 특히 미술치료의 경우 미술작품 및 특정 장르에 대한 분석연구를 포함함

3) 연구주제 분류기준

연구주제는 연구내용과 구분하여 연구대상의 주호소 및 치료목표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운데 연구대상을 크게 일반과 진단으로 구분하여 해당 대상별로 연구주제를 분류하였다. 문제증상을 가진 일반의 경우에는 문제유형에 따라 자아성장, 심리정서, 스트레스, 의사소통/대인관계, 부적응/문제행동, 학업/진로적응 관련 문제, 외상, 인지기능, 기타 등 9개 하위항목을 설정하였다. 의사로부터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 발달/학습장애, 정서/기분장애, 섭식장애, 아동기장애, 중독장애, 정신장애, 의료환자/뇌손상 장애, 기타 등 8개 하위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진단의 하위항목은 김수빈과 홍은주(2008)의 분류기준과 기정희 등(2011)의 연구

를 참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주제의 분류기준

구분	연구주제	세부내용
일반	자아성장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자아통합감, 창의력, 자아탄력성, 회복탄력성, 자기표현력 등
	심리정서	우울, 불안, 분노, 위축, 공격성, 충동통제, 사회공포증, 정서지능, 애착 등
	스트레스	스트레스 감소와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향상(또래관계, 부부 및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기술 및 사회성 향상 등
	부적응/문제행동	사회·학교 부적응, 등교거부, 자살시도, 도벽, 비행, 가출, 폭력, 인터넷 과다 사용, 성폭력 등 문제행동 개선
	학업 및 진로적응	학습능력, 학습태도, 학업성취, 진로탐색, 진로선택, 진로성숙, 직업 적응
	외상경험	심리적 외상, 성폭력, 신체학대, 집단 괴롭힘
	인지기능	인지기능 향상
	기타	그 외 치료목표
진단	발달/학습장애	다운증후군, 정신지체, 언어발달지체, 말더듬, 조음장애, 학습부진 및 장애
	정서/기분장애	정서장애, 우울증
	섭식장애	신경성 폭식증, 신경성 식욕부진증
	아동기장애	ADHD, 자폐증, 반응성 애착장애, 품행장애, 틱장애, 야뇨증, 유뇨증, 선택적 함묵증
	중독장애	인터넷 게임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만성정신분열증(입원)
	의료환자/뇌손상장애	치매, 노인성 질환, 소아 호스피스, 뇌졸중, 뇌병변장애, 화상
	기타	시·청각 장애, 성전환자, 미주신경성질환

4) 연구방법 분류기준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그리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통합된 혼합연구의 3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양적연구방법은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는 가운데 크게 조사연구, 실험연구, 관찰연구로 나누어진다(성태제, 2005). 질적 연구는 통계적 분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심리현상의 심층적 관찰, 현상학적 연구, 사례연구 등이 포함된다(강영걸, 박성복, 정영숙, 2004).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료분야의 실정에 맞게 양적연구에는 조사연구를 비롯하여 단

예술심리치료 연구동향 분석 -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2014~2018)을 중심으로-
(김수영·홍은주)

일집단 전후검사 설계를 포함하는 실험연구, 내용분석, 기타 등의 4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질적연구의 경우에는 김봉환 등(2012)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현상학, 근거이론, 사례연구, 내러티브(전기), 합의적 질적연구(CQR), 기타 등 6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사례연구의 경우에는 한 사례 혹은 한 개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사례연구와 둘 이상의 복수 사례를 연구한 중다사례연구 역시 포함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연구방법의 분류기준

구분	연구방법	세부 분류
1	양적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관찰연구
2	질적연구	현상학, 근거이론, 사례연구(단일사례연구, 중다사례연구), 내러티브(전기), 합의적 질적연구(CQR), 기타
3	혼합연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혼합

5) 매체별 예술심리치료 분류기준

예술심리치료의 경우 활용하는 매체에 따라 치료의 성격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매체 종류에 따른 예술심리치료 분류기준을 추가하였다. 이에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동작치료, 연극치료, 명상치료, 문학치료, 통합예술치료, 기타 등 8개 항목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치료를 문학치료에 포함하였으며, 연구대상 논문 가운데 연구 빈도가 낮은 푸드 아트나 언어를 기반으로 한 심리상담의 경우에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매체별 예술심리치료의 분류기준

구분	매체별 예술심리치료	세부 내용
1	미술치료	미술 매체를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
2	음악치료	음악 매체를 활용하는(음악감상, 따라 부르기, 작곡하기 등) 모든 활동을 의미함
3	무용/동작치료	무용, 동작 등 신체 움직임을 활용하는 활동을 의미함
4	연극치료	역할극 및 사이코 드라마를 포함함
5	명상치료	요가, 마음챙김 명상 등을 포함함
6	문학치료	이야기 치료, 독서치료 등을 포함함
7	통합예술치료	2개 이상의 매체를 활용한 치료적 개입을 의미함 (미술+음악/ 음악+동작/ 미술+드라마/ 미술+음악+명상 등)
8	기타	푸드 아트, 언어 상담 연구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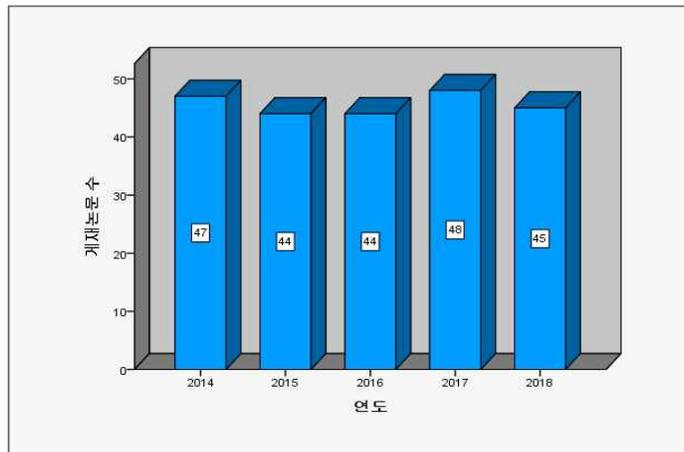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수집하여 분류유목에 따라 코딩을 한 뒤 SPSS 22.0 버전을 사용하여 각 분류범주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III. 결과

1. 연도별 게재논문 빈도 동향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예술심리치료연구」에 게재된 연도별 논문 수는 2014년에 47편(20.6%), 2015년에 44편(19.3%), 2016년에 44편(19.3%), 2017년에 48편(21.1%), 2018년에 45편(19.7%)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간 44~48편의 논문이 꾸준히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학회지 발행 연도별 게재논문 수

2. 연구대상 동향

연도별 연구대상에 관한 분석 결과,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연구된 대상은 청소년(13.6%)과 치료사(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이 12.7%, 소수집단이 11.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소수집단 결과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소자 2건(6.9%), 교사와 요양보호사 등 특정 직업이 4건(13.8%), 시설거주 6건(20.7%), 군인 2건(6.9%), 장애아동 어머니 3건(10.3%), 결손가정 2건(6.9%), 새터민 및 중도 입국민 3건(10.3%), 재난피해민 1건(3.4%), 감성노동자 2건(6.9%), 기타 4건(13.8%)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0.9%)과 유아(1.3%) 대상자에 대한 연구는 전체 연구에서 1~3건에 그치는 등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었다.

<표 6> 연도별 연구대상 분석

연도	연구대상													계
	유아	아동	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인	부부 가족	외국인	다문화	소수 집단	장애인	치료사	기타	
2014	1(2.1)	5(10.6)	6(12.8)	6(12.8)	5(10.6)	3(6.4)	2(4.3)	-	-	5(10.6)	5(10.6)	5(10.6)	3(6.4)	47
2015	-	5(11.4)	7(15.9)	3(6.8)	3(6.8)	1(2.3)	-	1(2.3)	1(2.3)	3(6.8)	10(22.7)	5(11.4)	6(13.6)	44
2016	-	4(9.1)	8(18.2)	4(9.1)	3(6.8)	1(2.3)	2(4.5)	-	2(4.5)	3(6.8)	6(13.6)	3(6.8)	8(18.2)	44
2017	2(4.2)	2(4.2)	5(10.4)	4(8.3)	3(6.3)	2(4.2)	-	-	3(6.3)	7(14.4)	4(8.3)	10(21.1)	6(12.3)	48
2018	-	3(6.7)	5(11.1)	1(2.2)	2(4.4)	5(6.7)	1(2.2)	1(2.2)	-	8(17.8)	4(13.3)	8(17.8)	7(15.6)	45
계	3(1.3)	19(8.3)	31(13.6)	18(7.9)	16(7.0)	12(5.3)	5(2.2)	2(0.9)	6(2.6)	26(11.4)	29(12.7)	31(13.6)	30(13.2)	228

* 괄호 안은 백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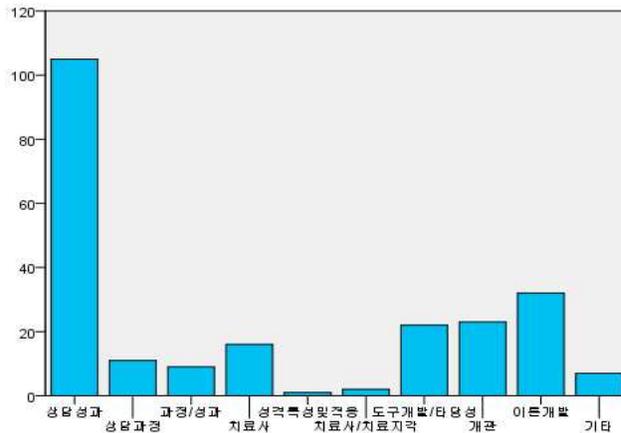
3. 연구내용 동향

연도에 따른 연구내용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치료개입에 따른 치료성 과를 다룬 연구가 46.1%로 전체 연구내용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이론개발이 14%, 개관연구가 10.1%, 도구개발 및 타당성 연구가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론개발 연구의 경우에는 매년 일정 수준으로 나타나 예술심리치료 전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성격특성 및 적응에 관한 연구(0.4%)와 치료사와 치료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 및 인식에 관한 연구(0.9%)는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구내용 동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7>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7> 연도별 연구내용 분석

연도	연구내용										계
	치료 성과	치료 과정	과정/ 성과	치료사 훈련	성격특성/ 적응	치료사/ 치료인식	도구개발/ 타당성	개관	이론 개발	기타	
2014	21(44.7)	2(4.3)	2(4.3)	3(6.4)	-	-	5(10.6)	6(12.8)	6(12.8)	2(4.3)	47
2015	25(56.8)	1(2.3)	1(2.3)	1(2.3)	-	-	4(9.1)	1(2.3)	7(15.9)	4(9.1)	44
2016	21(47.7)	3(6.8)	2(4.5)	-	-	-	7(15.9)	5(11.4)	6(13.6)	-	44
2017	20(41.7)	2(4.2)	2(4.2)	9(18.8)	1(2.1)	1(2.1)	4(8.3)	5(10.4)	4(8.3)	-	48
2018	18(40)	3(6.7)	2(4.4)	3(6.7)	-	1(2.2)	2(4.4)	6(13.3)	9(20)	1(2.2)	45
계	105(46.1)	11(4.8)	9(3.9)	16(7.0)	1(0.4)	2(0.9)	22(9.6)	23(10.1)	32(14.0)	7(3.1)	228

* 괄호 안은 백분율임



<그림 2> 연도별 연구내용 분석

4. 연구대상별 연구주제 동향

연구주제는 연구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발달단계를 제외한 연구대상 대부분이 특정 연구대상에 한정되는 연구주제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대상별 연구주제에 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내담자의 자아성장(28.6%)과 관련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심리건강(22.4%), 부적응/문제행동(13.6), 의사소통/대인관계(12.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연구대상인 청소년의 경우 부적응/문제행동이 주요 연구주제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유형과 관련된 직접적인 주제보다는 자아성장과

예술심리치료 연구동향 분석 -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2014~2018)을 중심으로-
(김수영·홍은주)

관련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집단에서는 자아성장과 외상 경험이 주요 연구주제로 다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연구대상별 연구주제 분석

연구 대상	연구주제									계
	자아 성장	심리 건강	스트레스	대인 관계	부적응/ 문제행동	학업/ 진로	외상	인지	장애 극복	
유아	1	1	-	-	-	-	-	-	-	2
아동	5	1	-	5	1	1	-	-	-	13
청소년	5	6	-	-	9	3	3	-	-	26
대학생	4	4	1	3	1	-	2	-	-	15
성인	3	4	2	-	-	-	1	1	-	11
노인	5	4	-	-	-	-	-	1	1	11
부부/가족	-	-	-	3	1	-	-	-	-	4
외국인	-	2	-	-	-	-	-	-	-	2
다문화	2	-	-	2	1	-	-	-	-	5
소수집단	8	2	2	2	-	1	6	-	-	21
장애인	9	6	-	3	6	-	-	2	2	28
치료사	-	-	2	-	-	-	1	-	-	3 *
기타	-	3	-	-	1	-	2	-	-	6
계	42(28.6)	33(22.4)	7(4.8)	18(12.2)	20(13.6)	5(3.4)	15(10.2)	4(2.7)	3(2.0)	147

괄호 안은 백분율임

5. 연구방법 동향

연도별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 양적 연구가 157건(68.9%)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질적연구는 56건(24.6%),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통합된 혼합 연구의 경우에는 15건(6.6%)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험연구가 96건(45.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조사연구가 38건(18.0%), 연구동향과 같은 내용분석이 21건(10.0%), 기타가 2건(0.9%)이었다. 질적연구의 경우 혼합연구로 분류되었어도 질적연구의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논문까지 모두 포함하여 총 66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질적 연구의 경우 주로 현상학적 연구와 사례연구가 이루어졌고 각각 17건(25.8%),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거이론이 10건(15.2%), 합의적 질적연구(CQR)가 4건(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연구방법 분석 결과는 <표 9>에, 양적연구 및 질적연구 분류 분석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9> 연도별 연구방법 분석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계
2014	37(78.7)	10(21.3)	-	47
2015	30(68.2)	13(29.5)	1(2.3)	44
2016	33(75.0)	6(13.6)	5(11.4)	44
2017	31(64.6)	11(22.9)	6(12.5)	48
2018	26(57.8)	16(35.6)	3(6.7)	45
계	157(68.9)	56(24.6)	15(6.6)	228

* 괄호 안은 백분율임

<표 10> 연도별 양적연구 및 질적연구 하위항목 분석

연도	양적연구					질적연구						
	조사	실험	내용 분석	기타	계	현상학	근거 이론	사례 연구	내러 티브	CQR	기타	계
2014	10(27)	21(56.8)	6(16.2)	-	37	3(30)	4(40)	1(10)	-	-	2(20)	10
2015	5(16.7)	22(73.3)	2(6.7)	1(3.3)	30	1(7.7)	3(23.1)	3(23.1)	-	-	6(46.2)	13
2016	10(30.3)	18(54.5)	5(15.2)	-	33	2(20.0)	-	6(60.0)	-	1(10.0)	1(10.0)	10
2017	9(29.0)	18(58.1)	3(9.7)	1(3.2)	31	7(41.2)	-	6(35.3)	1(5.9)	2(11.8)	1(5.9)	17
2018	4(15.4)	17(65.4)	5(19.2)	-	26	4(25.0)	3(18.8)	1(6.3)	2(12.5)	1(6.3)	5(31.3)	16
계	38(18)	96(45.5)	21(10)	2(0.9)	157	17(25.8)	10(15.2)	17(25.8)	3(4.5)	4(6.1)	15(22.7)	66

* 괄호 안은 백분율임

6. 각 매체별 예술심리치료 동향

매체별 각 예술심리치료분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미술치료가 136건(59.6%)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악치료가 45건(19.7%), 2가지 이상의 매체가 혼합되어 사용된 통합치료가 21건(9.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악치료의 경우 최근 5년간 꾸준히 게재논문 수가 늘어

나고 있는 반면, 통합치료의 경우에는 연구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극치료(0.4%), 명상치료(0.9%), 문학치료(1.3%)의 경우에는 연구 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매체별 예술심리치료 연구동향

연도	치료구분								계
	미술	음악	무용/ 동작	연극	명상	문학	통합	기타	
2014	24(51.1)	5(10.6)	-	1(2.1)	1(2.1)	3(6.4)	6(12.8)	7(14.9)	47
2015	32(72.7)	5(11.4)	-	-	-	-	4(9.1)	3(6.8)	44
2016	26(59.1)	11(25.0)	2(4.5)	-	-	-	2(4.5)	3(6.8)	44
2017	28(58.3)	10(20.8)	-	-	-	-	7(14.6)	3(6.3)	48
2018	26(57.8)	14(31.1)	-	-	1(2.2)	-	2(4.4)	2(4.4)	45
계	136(59.6)	45(19.7)	2(0.9)	1(0.4)	2(0.9)	3(1.3)	21(9.2)	18(7.9)	228

* 괄호 안은 백분율임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0권 1호부터 2018년 14권 4호까지 「예술심리치료연구」에 게재된 총 228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방법, 매체별 예술심리치료현황에 관한 사항들을 분석하여 예술심리치료의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예술심리치료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5년간 예술심리치료분야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대상은 청소년(13.6%)과 치료사(13.6%)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소수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대상 연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중독과 관련된 연구는 단 1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결과이다. 또한 ‘치료사’에 대한 연구가 매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내담자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대상 모집이 용이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사실상 치료의 핵심도구라 할 수 있는 치료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추후 치료사 대상의 연구에서 치료사들을 인터뷰하고 어떤 장애요소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주는지 등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는 치료사 대상의 질적연구도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Kelly et al., 2015). 한편,

재소자, 재난피해민, 감정노동자, 워킹맘 등 소수집단에 대한 연구 빈도가 늘어난 것은 예술심리치료 대상의 다양성과 더불어 학회지의 질적 성장을 함축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가 1~3건에 그치고 있는 것은 국내거주 외국인 170만 명 시대의 현 실정을 고려할 때 매우 미흡한 결과이다. 다문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연구 역시 최근 5년 간 단 3건에 그치는 등 특정 연령대에 다소 편향된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유아부터 취학 전 아동기의 경우 초기발달단계이자 정서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만큼 심리적 지원이 적극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언어발달이 미숙한 유아의 경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치료적 접근이 유용하므로 해당 연구대상에 대한 예술심리치료 개입 연구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체사용능력이 부족한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도 어떤 매체 접근이 더 유용한지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내용에 있어서는 치료성과를 다룬 연구가 105건(46.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이론개발, 개관연구, 도구 개발 및 타당성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심리치료의 연구가 상당 부분 치료성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예술심리치료의 시작이 매체를 활용한 실제적 임상적용에 있고 이로 인해 치료 과정에 대한 분석보다는 매체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중요시 하며 양적 팽창을 거듭해 온 것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겠다. 성격특성 및 적응에 관한 연구 빈도가 낮은 것 역시 인간심리의 측면보다는 매체 적용에 따른 효과에 좀 더 비중을 둬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최근 근거 기반의 성과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이근매, 2011) 성과에 대한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정 및 성과연구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5년간 새로운 이론적 기반 마련을 위한 개관연구 및 이론개발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치료 과정과 성과를 함께 분석하려는 시도 역시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주제에서 연구대상의 자아성장(28.6%)과 심리정서(22.4%)를 다루는 연구들이 전체 연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부적응 및 문제행동 개선에 관한 연구(13.6%),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향상에 관한 연구(12.2%) 순이었다. 스트레스 개선(4.8%), 학업 및 진로에 관한 연구(3.4%)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예술심리치료분야의 주요 연구대상이 발달적 과업 수행과 더불어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청소년, 대학(원)생, 성인인 것을 고려한다면 해당 연구주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자아성장이나 심리정서 주제의 연구들은 주로 예방적 접근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므로 예술심리치료의 대중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Kelly 등(2015)의 연구에서

도 예술심리치료분야의 92편의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동향을 제시하였는데, 일반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예술심리치료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인지기능, 압, 삶의 질, 스트레스, 웰빙 등의 순으로 나타나 문제에 대한 사후대책으로서의 치료접근보다는 삶의 질 등 사전 예방적 접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의 정의와도 관련지어 볼 수 있는데, WHO는 “건강은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상태”로 건강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김정미, 박희숙, 2016)하고 있다. 예술매체 및 활동이 내포하고 있는 창조성, 치유성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을 위한 건강심리분야로서의 예방적 접근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양적연구가 전체 논문 수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의 하위항목을 좀 더 살펴보면 성과연구와 상관인 높은 실험연구(45.5%)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사연구(18%)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동향과 관련된 내용분석 역시 매년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양적 연구가 꾸준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결과는 치료효과에 대한 근거 기반 연구를 요구하는 치료연구계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질적연구는 전체 연구의 2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로 현상학적 연구(25.8%)와 사례연구(25.8%)를 통한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 연구의 경우 대부분 단일 사례나 단일 개체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에서 전후검사를 활용한 양적 비교 및 치료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다. 예술심리치료는 내담자 개인의 변화과정과 치료의 효과를 모두 중요하게 다루므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혼합연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Kelly et al., 2015)는 점에서 혼합연구의 비중이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각 매체별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미술치료와 음악치료가 전체 예술심리치료분야의 8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편중화가 심한 가운데 최근 5년간 무용/동작치료 및 명상치료, 문학치료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 성과연구뿐 아니라 해당 치료분야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예술심리치료 연구동향에 관한 해외의 선행연구(Kelly et al., 2015)에서도 문학치료(글쓰기), 음악치료, 미술치료, 동작치료에 관한 연구는 활발한 데 반해 문학이나 동작치료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고 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들 매체를 통한 효과성을 보여주는 연구가 더 많이 실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더불어 2가지 이상의 치료를 혼합한 통합예술치료에 대한 연구도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전체 예술심리치료의 연구동향을 살펴본다는 취지로 전체적으로만 살펴보았고, 각 치료매체별로 다시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방법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각 예술매체별로 이를 비교하여 각 예술심리치료분야가 실제 임상현장에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한눈에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예술치료연구 학회지 가운데 「예술심리치료연구」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료 분야의 국내의 타 학술지나 해외 학술지 등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인 연구동향 비교 연구가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학술지와 비교연구는 국내 예술심리치료 연구분야의 현주소 점검은 물론 해당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예술심리치료연구」의 최근 5년간의 연구동향을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방법, 매체별로 살펴봄으로써 예술심리치료연구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되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영걸 · 박성복 · 정영숙(2004). 사회복지조사론. 서울: 학현사.
- 강영주 · 김미진(2016). 우울에 대한 예술심리치료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12, 105-126.
- 기정희 · 이숙미 · 김준경 · 정종진 · 최용용(2011). 한국 미술치료의 연구동향: 한국미술치료학회지 게재논문(1994~2010)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18, 463-483.
- 김계원 · 정종진 · 권희영 · 이윤주 · 김준경(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09).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21-542.
- 김도희(2016). PTSD 관련 국내 미술치료 연구동향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12(3), 227-256.
- 김봉환 · 배주연 · 오효정 · 윤영선 · 제갈원(2012). 상담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분석(2002~2011).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729-752.
- 김수빈 · 홍은주(2008). 국내 미술치료 연구동향: 국내 미술치료 학회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1994~2007). 놀이치료연구, 11(2), 71-86.
- 김정미 · 박희숙 (2016). 정신건강론. 경기: 공동체.
- 박경애 · 백지은(2017).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2012~2016) 분석 및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게재논문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893-913.
- 박미숙 · 이근매(2015). 성인미술치료의 연구동향: 한국미술치료학회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2005~2014). 예술심리치료연구, 11(4), 67-87.
- 변창진(1995). 상담심리 연구동향 I: 연구주제. 학생지도연구, 28(1), 1-26.
- 성태제(2005).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소현경 · 이근매(2017). 대학생활 적응수준에 따른 풍경구성기법 (LMT)의 반응 특성 비교. 미술치료연구, 24, 373-393.
- 오승진 · 권충훈(2018). 언어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한 ‘예술심리치료연구’ 연구 동향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14(3), 91-114.
- 원상화 · 김효은 · 서주연 · 최은실 · 윤선희 · 최애나 · 정광조(2009). 독일예술심리치료의 발전 동향과 한국예술심리치료 발전을 위한 제언. 예술심리치료연구, 5(1), 1-21.
- 이근매(2011). 예술심리치료의 특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7, 59-81.

- 이근매(2016). 잡지그림 콜라주 미술치료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예술심리치료 연구*, 12(3), 19-41.
- 이정희 · 한승희 · 강승희 · 문경숙(2014).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예술치료의 연구 동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0(2), 151-177.
- 임성윤(2014). 미국의 재소자 미술치료 연구 동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0(2), 75-94.
- 조성호(2003).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1988~2003).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832.
- 조용태(2008a). 우리나라 예술심리치료의 과제. 2008년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pp. 1-14).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 최태산 · 조정숙(2016). 학교폭력에 관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연구동향과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12(2), 189-216.
- Atkins, S. S., & Williams, L. D.(2007). *Sourcebook in expressive arts therapy*. Parkway Publishers, Inc..
- Brown, F. G. (1969). Seven years of the journal: A review.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8(4), 263-272.
- Buboltz Jr, W. C., Miller, M., & Williams, D. J.(1999).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1973 - 1998).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4), 496.
- Kelly. S., Davies. L., Deborah. H., Alex. M., David. P., & Nicholas. P(2015). *Reviewing art therapy research : a constructive critique*. Sheffield Hallam University.

Abstract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 of Arts Psychotherapy
- Focused on the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2014-2018) -

Kim, Su-Young* · Hong, Eun-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research trends in the area of Arts Psychotherapy by analysing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A total of 228 papers were collected from March 2014 to December 2018, and organised according to research objects, research contents, research topics, research methods, and various arts psychotherapy types. Then, we used frequency analysis to determine the research tre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research objects of many studies were adolescents group and therapists, and these two groups consisted of 13% each of total research objects. Secondly, the most popular research contents was the outcome of the therapy, which was 46.1% of the total, development of the theory was 14%, and the outline research was 10.1% of the total. Thirdly, the most popular research topic was the study on the self-growth of the client, which reached up to 28.6%, and psychological health (22.4%), maladjustment/problem behaviour (13.6%) followed. Fourth, 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in 68.9% of dissertations, and only 24.6% were used in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ifth, the art therapy (59.6%) and the music therapy (19.7%) were the majority of the therapy types used in the research, which consisted nearly 80% of the total. To conclude, We proposed the future direction of arts therapy development with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s a basis.

Key word : Art Psychotherapy Research, Research Trend, Content Analysis

* Art therapist, Eulji Child Development Support Center

** Professor, Eulji University Faculty of Child Studies, eunjooHong@hanmail.net